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제20권 제5호, pp. 1089-1113.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5.1089

여가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경험 탐색: 'H' 중국 전통무용팀을 중심으로

이춘양(인하대학교)*
김수민(인하대학교)**
이현주(인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결혼이주여성 삶 속에서의 사회, 생활 및 심리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전통무용팀 'H'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한국 문화 습득, 자문화 선전, 다문화인식 개선, 네트워크 형성, 경제적 보탬, 가족관계 개선, 삶의 질 향상, 사회적지지, 향수 해소,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과 정주민으로부터의 사회적 편견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무용, 문화예술, 여가, 이주민**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lcy070926@naver.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sumin194@gmail.com)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tricia9494@hanmail.net)

Ⅰ. 서론

여가를 의미하는 'Leisure'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로써 'licere'는 외부 압박이 없는 자유로운 선택과 충동, 'scole'는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라는 단어가 합쳐져 구성된다. 여가는 외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상태를 반영한다. 이렇듯 여가는 휴식의 개념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위한 행위로써 여겨졌다(Murphy, 1981; Cohen, 1974; Dumazedier, 1974). 여가는 이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위한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김성혁, 김용일, 채의융, 2012; 김희순, 정희선,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이주민들은 많지 않다. 2019년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전년 동월의 체류외국인의 수가 5%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08월 31일 기준으로 242만 명이 되었다. 국내에 이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비해, 이주민들은 자신의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2019a)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가족을 돌보거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주민에게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일자리, 자녀교육 관련 의논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 등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공동체으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기도 하였다. 여가는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김성혁, 김용일, 채의융, 2012; 김희순, 정희선, 2011).

여러 연구에서 이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 경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생계로 인해 여가를 충분히 즐기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여가는 중요시 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배선식, 2016). 이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으로 연구한 김현경(2016)과 송영민, 이광옥(2013)은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이 삶의 질과 사회에서의 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여가활동의 종류로써 문화체육관광부(2010)의 '이주민 문화 향수 실태 조사'는 주로 휴식을 취하던 소극적인 여가 행동에서 컴퓨터 게임과 같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이주민들은 여전히 제한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여가의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치 않았고(배선식, 2016; 이혜린, 권유홍, 2014), 소수의 이주민만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배선식, 2016; 김종호, 2012). 그러한 이주민들은 주로 국한된 분야의 여가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종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에어로빅, 등산, 여행, 조깅, 인라인스케이트, 산책, 요가,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민들은 한국생활에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송선기, 전승호, 2015).

이처럼 여가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은 이주민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국한되어 있으며, 접하지 못 한 이주민들 또한 많았다. 문화예술 관련 선행연구(이승권, 김은선, 2016; 송선기, 전승호, 2015; 김은정, 이희찬, 강혜순, 2014; 김희순, 정희선, 2011)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경험하였음을 반영하였다.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여가로써의 역할을 넘어 정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의 장을 형성하였다(김희순, 정희선, 2011).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를 정주민에게 공유하며,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여가활동을 통해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이춘양, 김기화,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주민들은 지역 사회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게 되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증진하였다(이춘양, 김기화, 201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무용교육을 연구한 황재섭(2011)은 결혼이주여성이 무용을 통하여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 사회로부터의 편견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을 밝혔다. 이주민들은 무용교육의 형태를 통해 해방감과 소통의 기회를 경험하고 있지만, 무용을 여가로 즐김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김영미, 박수선(2015)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무용과 그들의 본국 전통무용을 통하여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을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들은 무용을 통한 사회성 증진과 정체성 형성의 측면을 강조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주민 중 중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의 자조 모임인 'H' 전통무용팀을 통한 이주민의 여가로서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탐색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가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결혼이주여성 삶 속에서의 사회, 생활 및 심리적 측면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은 문화(Culture)와 예술(Art)이 합성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문화예술진흥법(2019)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을 일컫는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창의성을 함양시킨다(김보나, 2014). 정윤영(2015)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함양, 의사소통 조성, 자기관리 역량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화예술은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문화예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자기표현을 증진하여 자아를 성장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에서의 여유를 즐기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을 경험한다(이지원, 2015). 문화예술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된다(윤소영, 2007). 무용은 상호작용의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용도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과 유사하게 몸짓을 통해 관객과 상호작용을 성립한다. 무용에서의 몸짓은 무용수의 감정이입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기에, 단순한 신체 움직임을 통한 상호작용이 아닌 사회성이 높은 상호작용의 형태로 구현된다(이지연, 2007). 문화예술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화되면서 특정한 기술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정진옥, 정무성, 2013).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정리하자면(전경옥 외, 2012),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써 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이주민의 모국향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를 위한 프로그램,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성격으로써, 이들은 여러 행사를 관람,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특정 문화예술 활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취미가 유사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자조모임으로부터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된다.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의 주제로 행해졌다. 황제섭(2011)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무용 활동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국내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송선기, 전승호(2015)는 이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요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김숙현(2017)과 남지향(2010)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영란, 전경옥, 홍기원(2013)은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설진배, 어승원, 김연화(2013)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증진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주민의 여가활동

여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Dumazedier(1967)를 통하여 여가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휴식하고 기분 전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넓히고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노동・가족・사회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활동”으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여가를 의미하는 ‘leisure’의 어원과 유사하다. 어원에 따르면 여가는 외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여가는 휴식과 기분전환을 통하여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사교적인 여가활동은 대인관계 형성, 심리적 완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다(김성혁, 김용일, 채의융, 2012; 이철원, 2010). 이주민에게 여가란 휴식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 적응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백정숙, 이계희(2006)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어려움,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부터 시간 부족, 이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신체활동 중심적 여가활동보다는 휴식이나 사교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했음을 밝히었다. 백선아, 원영신(2013)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스포츠 여가를 통해 정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함을 강조하였다.

여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 강화 및 정체성 형성,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김종호, 2012). 여가의 역할은 주로 노동과 보상간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한편, 결혼이주여성에게 여가의 의미는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한국사회와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방법이다(민웅기, 김상학, 2018). 이주민 중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생업과 육아로 인해 지역 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a). 그들의 가정생활과 한국사회에서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가 필요로 해진다(전리상, 조홍중, 2017).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타인과 함께 경험하는 여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정책 개발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김영미, 2014),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여가의 유형은 심리적 안녕을 위한 여가, 정서적 안정 및 개발을 위한 여가, 실용 추구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여가, 문화 적응을 위한 여가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정주민과 비교했을 때 이주민에게 여가의 의미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에게 여가활동 참여는 정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배선식, 2016). 이러한 소통의 장은 이주민이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현지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가를 통한 문화적응 및 사회적지지 등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난타 활동 경험을 통한 여가에 대한 연구(이춘양, 김기화, 2018)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난타 활동 경험을 통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여가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김유식, 이솔잎(2017)은 결혼이주여성이 여가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 작용, 유대감 형성 등의 기본 욕구 충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경험 관련 연구(박인실, 2018)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함으로써 한국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히었다. 오세경, 김영순(2019)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여가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개선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김성혁, 김용일, 채의융(2012)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여가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가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여가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김은정, 이희찬, 강혜순(2014)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체험 및 취미활동 위주의 여가활동은 현지 문화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했다.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무용 자조모임 'H'에서 무용을 기획하고 활동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 혹은 분석이 필요할 때 행해진다.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하는 지를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Creswell, 2007). 이를 통해 경계된 체계인 사례에 집중하게 되며 현상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 연구 방법은 특정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의미를 통찰, 발견, 해석하고자 할 때 쓰인다(김진희, 김영순, 김지영, 2015; Merriam, 1998).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를 분석하여 삶 속에서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일반 여성들과 구분되며, 지역사회 안에서 여가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감으로써 경계 지어진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는 특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얻은 정보는 구체적이며 생생하기 때문에, 이주민을 위한 여가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직접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여 그들과 연대를 형성했으며, 그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듣게 되었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설계를 하여 'H' 중국 전통무용팀을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해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했다. 질문지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오세경, 김영순, 2019; 김영미, 박수선, 2015; 김성혁, 김용일, 채의융, 2012; 김종호, 2012; 황재섭, 2011)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무용 자조모임 참여 동기, 참여 경험, 참여 전·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 경험의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 참여 경험,

문화예술 활동이 삶에 미치는 사회적, 생활적,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자택이나 활동하고 있는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커피숍에서 이루어졌고, 인터뷰는 일대 일로 진행되었으며,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두 달을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시, 연구자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함께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인적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 후에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오프라인 자료는 잠금장치가 된 캐빈넷, 온라인 자료는 암호화된 컴퓨터에 적장하여 보관한다. 본 연구는 결과물 작성 과정 중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신상정보 및 기관 정보 관련하여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 중국어에 의한 심층 인터뷰 후 전사록에 대해 두 명의 번역사를 통하여 한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한 명의 번역사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며, 한국에서 13년째 거주하고 있어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 6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 한국어교사로서 근무를 했다. 또한 그는 현재 'I' 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생이다. 다른 번역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며, 중국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고 북경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I' 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석사 과정 재학생이다. 그는 한어수평고시인 HSK 6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학력	입국 시기	참여 시기	특징
연구 참여자 1	38	4년제 대졸	2005	2012	1기 멤버, 안무가 겸 무용교사
연구 참여자 2	40	중졸	2010	2013	2기 멤버, 조직자
연구 참여자 3	49	고졸	2005	2019	후기 멤버
연구 참여자 4	37	고졸	2017	2018	후기 멤버
연구 참여자 5	54	전문대 졸	2004	2012	1기 멤버, 활동 기획자, 다문화센터 종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

주여성으로 1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에 체류한지 10년 이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1은 2005년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낯선 땅에 와서 결혼생활과 육아생활을 하며 한국사회와 분리된 채 지내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의 소개로 자조모임에 참여를 하며 고립된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다. 자조모임에 참여한지 7년이 되었으며, 모임 내에서 1기 멤버로서 안무가 겸 무용교사로서 역할을 행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2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타국에 와서 결혼생활과 육아생활을 하며 한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다. 지인으로부터의 소개로 자조모임에 참여를 하여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기회를 경험했다. 자조모임에 참여한지 3년이 되었으며, 모임 내에서 2기 멤버로서 조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3은 2005년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2018년까지 결혼생활, 육아생활과 경제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에 이주민으로서 힘든 생활을 겪고 있었다. 지인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자조모임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마침내 2019년에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4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한국어에 유난히 서툴러했다. 지인의 소개로 2019년에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 적응으로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국적이 같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연구 참여자 5는 2004에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서툰 한국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을 해소해줄만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2012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조모임을 통해 우울감도 해소하며 긍정적인 힘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OO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월례세미나에서 연구의 진행사항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박사 3명과 박사 과정생 9명의 전문가 확인 및 동료 검토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터뷰 후 전사록을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실시하였다.

Ⅵ.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결혼이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주

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5명의 연구 참여자가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에 참여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타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인식 개선', '자문화 선전',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차별과 편견', '삶의 질 향상', '네트워크 형성', '생활 정보 획득', '경제적 보탬',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지지', '향수 해소', '꿈의 실현', '리더로서의 성장',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으로 나타났다.

1. 사회적 측면

대다수의 국내 미디어 속에서 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중앙아시아인 등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으로 묘사된다. 결혼이주여성은 가난한 집안 출신인 것이 부각되고, 남편, 시댁과 갈등을 겪는 모습이 주로 노출되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존재로 그려진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소극적이고 자신을 향한 차별에 저항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로 그려지며, 이주노동자나 재중동포의 경우 불법체류자이자 범죄를 일삼는 이미지로 그려지곤 한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이주민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한편 한국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체감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타문화 이해 증진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해했다. 타국인 한국에 와서도 가정이라는 제한적인 활동반경 내에서만 생활하던 그들은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다른 외국 사람들도 어울렸었어요. 거의 베트남 필리핀이나..어... 다른 나라 친구도 만나봤는데 차이 있죠. 문화 차이. 처음에는 다 똑같이 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 똑같이 하는 줄 알고 그 나중에 지내보니깐 아.. 우리 다르구나 인식도 다르고 좀 사고방식도 다른 점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중략) 나라마다 틀린 점이 있고 근데 사람 다 착해요. 다 나쁜 거 아니고. 단지 문화 차이. 몰라서 그렇죠. 이해하면 이렇구나. 이런 점이 있구나."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다른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 저희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자기 나라 전통적인 거를, 현대적인 게 아닌 전통적인 거. 자기 나라만의 문화를 보여 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강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그냥 그런 게 의미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나. 다문화인식 개선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미디어가 이주민에 대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문화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한국 사회의 문제 대상이자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가 존중받기를 바랐으며, 자신을 동정의 시선이 아닌 동등한 시선으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료로 바라봐 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조모임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했다.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에 관해서, TV에서는 맨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나오니까. 그 나라들의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나라마다 자기의 전통문화가 있으니까,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화 풍습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다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전통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 이주민들은 문제 집단이 아니에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끼리의 교류를 촉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도움과 혜택만 노리는 취약 계층이 아니고, 세금도 내고, 한국 사회 활동도 참여하는 한국 사회 구성원이다. 단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하는데 시간을 필요한 것뿐이에요. 다문화 가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한국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4, 2019. 10. 01)

다. 자문화 선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 활동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정주민과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 중국의 전통무용을 춰 정주민과 다른 이주민에게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우리는 자기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 우리는 돈을 못줘도 자원봉사하면서 중국에서 오니깐 홍보하기 위해서 무용 팀을 만든 거라서요. 중국문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중국의 전통무용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중국의 전통무용,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중국 문화를 한국에서 발전을 시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라. 사회 활동 참여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공연 외에 양로원, 장애아동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무료로 자선 공연을 하기도 했다. 공연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공연 준비를 하고 공연 장소까지 오고 가는 데 시간적, 금전적인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겼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온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웃에게 선의를 베푸는 경험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게 해주고,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다 자원봉사 공연이에요. 공연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끔 교통비나 식비를 주는 기관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공연을 하려고 해도 연습을 해야 하고, 서로 맞춰봐야 되니까, 시간 투자, 공연복, 교통비 같은 지출도 많은데, 저는 다 괜찮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회에 보답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도움만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한국사회의 일원이니까요. 우리도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어르신들과 관련된 행사는 저희가 가서 봉사하고 무료로 자선 공연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사회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껴요. 우리도 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5, 2019. 10. 24)

마.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모국인 중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정주민의 다문화인식을 개선시키는 등 변화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정주민들로부터 여전히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차별적 언행, 정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습관, 인식을 바꾸는 것이 다가오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를 동물원처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중략) 다문화는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니깐 우리는 여기서 사는 여성분들이 공연한다고... 왜 그렇게 소개해야 하나요.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깐 그럼 우리는 이상한 존재 돼버리는 거잖아요. ……(중략) 중국 무용팀인가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한다고 얘기 낳아주고 그렇게 얘기하니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인은 아직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상 속의 중국, 가난한 중국, 낙후된 중국으로 인식하고 생각해요. 지금의 중국은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대한 차별 인식, 고정 관념이 없어지고,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야...” (연구 참여자 4, 2019. 10. 01)

2. 생활적 측면

여성가족부(2019b)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귀화자 등의 약 69.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돌본다. 이렇듯 그들은 현실에 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쓸 여유가 없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주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더 보람찬 생활을 하고, 같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팀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나누었다.

가. 삶의 질 향상

자조모임에 참여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이자 아내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만 충실했다. 그들은 집안일만 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며 바쁘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같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무용을 배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이 다채로워졌다고 느꼈으며, 이전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느꼈다.

"전에는 그냥 매일 매일 회사 집 회사 집,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다른 것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지루하고 그랬는데, 무용팀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도 많이 알게 됐고, 생활도 다채로워졌고, 충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이야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거의 집에서만 있었어요. 남편은 일하러 가면,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핸드폰만 만지고 그랬어요. 친구가 여기 중국 전통무용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중국 전통무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한 번 배워 보는 게 어떻냐고 해서,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한국말도 못 하고, 맨날 혼자만 집에 있는 것도 심심하니까 왔어요. 중국 친구도 만나고, 중국어로 말도 통하니까." (연구 참여자 4, 2019. 10. 01)

나. 네트워크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에 참여하기 전, 가족 외에 친구가 거의 없었다. 직장이나 동네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관계의 깊이가 제한적이었으며, 심리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컸다. 그들은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나누었다. 연령대와 출신 지역은 제각각이었지만 모국이 중국이라는 것,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다는 공통점만으로 충분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해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집 근처 이웃 정도. 회사에도 없어요. 친구라고는 딱 한 명뿐이었어요. 여기 무용팀에 들어와서 춤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중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랑 지금은 모두 친구가 됐어요."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전에 근무했던 곳에는 한국 사람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중국인 친구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주 가까운 데 있었는데도 전에는 몰랐어요. 알고 나서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같이 하고, 너무 좋아요. 전에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다. 생활정보 획득

결혼이주여성은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주민과 소통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집과 가족 말고는 아는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 외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장보기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아이 양육, 가정생활, 사회생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도왔다.

“일단은 팀이 이루어지면 다문화센터에 계속 다니게 되잖아요. 애기 양육하거나, 사회생활, 취업, 창업 등의 정보가 나오면, 일정이 나오면 저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중략)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주 오니깐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고 있는 점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같이 수다 떨 수 있어서...”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불편하니까요. 가는 곳도 한정되어있고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물건 살 때나, 예를 들어 시장에 가려면 언어가 잘 통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한국어가 그나마 잘 되는 친구가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주변 상황 같은 거. 한 번도 안 가본 데는 갈 엄두가 안 나고...”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라. 경제적 보탬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에 여가를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었으며, 대회에 참가한 것도 수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타문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등의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 하게 큰 상과 상금을 타게 되었고 이는 약간의 경제적 보탬이 되기도 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대회에서 큰 상을 탄 이력이 있었는데 받은 상금을 모든 팀원들이 나누어 갖기에는 충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최소한 그들의 자조모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보탬이 되었다.

"그쪽에서 다문화센터에 저희 무용단이 있는 걸 알고 초청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대신해서 안산 가서 새마을, 다문화, 그 공연을 한 거죠. 그 때는 몰랐고. 그냥 대회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큰 상이고 뭐고 상 받을 생각을 아예 못 했었어요. 근데 참가해서 대상, 100만 원 받았죠.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정말 상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전국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국 1등이라는 게 이제 상금 3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첫 참가였는데 바로 1등에, 상금도 그렇게 많이 받고, 다들 정말 기뻐했어요." (연구 참여자 5, 2019. 10. 24)

마. 가족관계 개선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 경제활동을 하며 스트레스와 일에 치여 가족들과 소통이 부족한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가정 내에서 존재감 없는 익숙함 속에 살던 그들은 직접 무대에 서서 아름다운 춤사위로 중국의 전통무용을 보여줌으로써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자조모임 활동을 반대하던 가족들도 그들의 여가생활을 인정하고 이해해주었으며 격려와 응원을 보태주었다. 가정 내에서 단절되었던 대화는 연구 참여자의 자조모임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으며, 가정에는 온기가 감돌고 활력이 생겼다.

"연습하면서 가족들, 남편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습하는 시간에 집안일 하기를 바라시니까. 집안 꼴이 조금 더럽다 뭐 그런 거죠. 한국 남편들은 아무래도 아내가 집안에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긴 한데 또 공연 관람하면, 이제 시간 되면 아내 공연 보러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또 좋아들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좀 예쁘긴 하네, 춤 잘 추긴 하네 그러세요."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전에는 남편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고, 애 보고, 남편하고 말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연습이나 공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끔 이야기하고 너무 좋아요. 남편 말로는 제가 좋아하면 된대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저는 공연할 때마다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공연할 때는 남편과 아이도 데리고 같이 가요. 남편은 저를 못 알아본다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했어요. 남편과 아이가 즐겁게 보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 힘이 나요." (연구 참여자 4, 2019. 10. 01)

3. 심리적 측면

여성가족부(2019b)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귀화자 등 가운데 지난 1년간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이들은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정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 팀원과의 소통 및 각종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극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자아 성취 및 성장을 이루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가. 사회적지지

이주 생활 중 가장 힘든 점 중 하나가 바로 고민을 나누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에서의 이질감,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 전 기대와 다른 생활상, 시댁의 간섭, 자녀양육 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충분치 않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같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생기는 고민을 나누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친구가 생겼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친정 가족처럼 타국에서 의지가 되는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제일 힘들 때 그러면 누구랑 그런 힘든 애기, 친구들이랑 생활 속에 힘든 애기를 팀원들이랑 같이 나눠요. 우리 이제는 친구가 생겼잖아요. 서로는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뭐 애기는 낳든지 돌잔치 할 때 이제는 서로 연락하고 뭐 이사 갈 때도 가고 친구 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잘 아시겠지만 여자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사회적인 교류가 없으면 외로워지고, 우울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매주 2, 3번씩 만나서 춤추면서 그 시간에 서로 소통하고 다 같이 재잘재잘 이 애기, 저 애기 하면서. ……(중략) 누군가에게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고, 같이 해결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다들 센터를 친정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친정 식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 오면 고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모두가 당신을 반갑게 맞아주고, 당신이 기뻐하는 걸 보고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그래서 다들 여기 모여서 춤 연습 하고 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5, 2019. 09. 25)

나. 향수 해소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집중을 해야 했기에 모국과 친정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이러한 그리움을 해소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야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지인의 권유로 우연한 기회에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팀원들을 만나 중국어를 사용해 고향의 기억을 나누고 고향 요리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했다. 팀원들은 그들에게 있어 고향 친구이자 친정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춤 연습 하고, 잡담도 하고, 이런 저런 생활 속의 이야기도 하고, 한 명 집에 가서 같이 중국 요리 해먹고 ……(중략)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다 여기 없으니까, 모임을 하면 고향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특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람도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은 고향 생각나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바로 만나자고 해요.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그래서, 점점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이 무용단에 들어오면 다들 너무 즐거워하고, 같이 춤 연습 하고, 가끔씩 중국 음식 같은 거 만들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하다보면 빨리 친해지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좋아지고.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연구 참여자 5, 2019. 09. 25)

다. 꿈의 실현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릴 적 중국에서 전통 노래나 무용을 배운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예술 쪽 길을 가고자 했던 경우도 있었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잊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그들은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그들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중략) 저희 둘째 사촌언니 딸이 중국 문화 선전 공작단에 있는데 조카 따라서 현대무용을 하게 됐어요. 그 때는 집안 뜰에서 하고 그랬어요. ……(중략) 맨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녁 먹자마자 조카네 가서 춤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두 달 해서 현대무용하고 민족무용도 할 줄 알게 됐죠."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중국 전통무용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관 한 번 했는데 관심이 생겨서 같

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중략) 무용팀 참가하고 나서 가장 큰 소득은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옛날 어릴 때부터 무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무용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와서도 생활하기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라. 리더로서의 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잊고 있었던 오랜 꿈을 이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춤을 선택하고 안무를 짜고 팀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팀의 일원 중 하나였던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창립멤버이기도 하고 이 노래, 이 춤을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그때는 있어도 우리처럼 조금 다양한 동작을 사용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나서는 소문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기... 계속 공연 다니기 바빴어요. 처음에는 무용을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용교사가 되었네요."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나중에는 왕 선생님이 일 때문에 못 오신 이후로 제가 팀을 맡았었거든요.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2기에 들어가서, 신입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다른 멤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잖아요. 좋아요." (연구 참여자 2, 2019. 09. 25)

마.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삶의 목표나 여유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존감을 잃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은 채 지내던 그들은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에 들어가 팀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땀 흘리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이 해소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 또한 각종 무용대회나 공연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나날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정주민들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받으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팀이 만들고 나서는 진짜 제일 큰 수확은 사회에서 지원보다는 팀원들이 조금 좌절감 친구 없고 우울감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애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맨날 집에서 있다가 가만있다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한국말 너무 못 하고 나가서 무엇도 할 수 없다 맨날 집에서 애기만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

게 팀 구성하고 나와서는 이제 연습할 때도 서로 말해주고 움직이다 보니깐 또 땀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나중에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하고 무대에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까지 받으면 진짜 자신감하고 그리고 뿌듯감 있는 거죠. 이거 다른 무엇보다는 제일 큰 효과는 이 사람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효과죠." (연구 참여자 1, 2019. 09. 23)

"전에는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공연, 무대를 말하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느낌이었어요. 직접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가끔 공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중국의 전통무용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3, 2019. 10. 01)

"처음 공연하는데 큰 무대를 경험해서, 긴장감 같은 것도 다 경험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에는 더 많은 공연을 했고, 갈수록 좋아졌어요. 춤도 더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공연 관객들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줘요. 저희도 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연구 참여자 4, 2019. 10. 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 타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인식 개선, 자문화 선전,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 네트워크 형성, 생활 정보 획득, 경제적 보탬,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지지, 향수 해소, 꿈의 실현, 리더로서의 성장,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정 중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토로하였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간과 공간 사용의 제약,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중국 전통무용 자조모임을 통해 정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조성했지만, 정주민은 여전히 그들을 평등한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민을 위한 여가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그들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들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생활에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생업에 대한 보탬이 되는 경제적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주민 중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생업에 집중하다 보니 본인을

위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가활동은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들은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이주민으로서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여가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 그들에게 가정의 생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생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여 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여가의 기회를 증진해줄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경제생활 참여의 기회 또한 증진시켜준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이주민을 위한 지원시설에서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들 스스로 공간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시설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 더불어, 지원시설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요구되어진다. 그들이 공연을 위한 무용 소품, 안무 창작 비용, 전문가 섭외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무용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탔을 때도, 개인을 위해 상금을 배분하기 보다는 공연 준비를 위해 지출한다. 이에 따라, 그들이 공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해진다. 이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중국 전통무용팀 자조모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있지만,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여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에 전문 인력의 도움이 충분치 않다. 그들은 현재 팀 내에서 무용의 경험이 있는 팀원을 위주로 팀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팀 내 구조는 개별 팀원에게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로 해진다.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문 인력 지원이 늘어난다면 추후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와 잠재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넷째,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각 정부 및 지역 단체 기관은 이주민들이 정주민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소통의 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중국전통무용팀원으로서 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들은 사회자로서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이주민으로서 소개를 받았다. 그들은 이주민이 아닌 정주민과 평등한 관계에서 공연을 참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와 달리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으로써 낙인이 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형성되어, 정주민들이 이주민들을 사회적 편견 없이 바라

보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소통의 장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 적응을 하면서 경험하는 자존감 하락,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가활동은 삶에서의 돌파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생업에 집중한 나머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심지어 지원센터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이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증진하여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경험은 이와 같은 제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과 연구 관련 연구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주민의 여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진행되었지만,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최근 7년 동안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민이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여가의 종류가 한정적이며, 참여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 여가의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보나 (2014).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활성화 방안연구: 무용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혁, 김용일, 채의융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따른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6**(6), 189-210.

김숙현 (2017).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그녀들 공연의 의미와 과제: 성동구 결혼이주여성 공연 사례 <마마>에 기반하여. **한국연극학, 62**, 35-68.

김영란, 전경옥, 홍기원 (2013).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의 역할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6**(1), 81-107.

김영미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여가 활성화 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충청북도: 서원대학교.

김영미, 박수선 (2015). 다문화가족 대상 국내 무용 및 스포츠 연구동향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2**(4), 1-11.

김우찬 (2015).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5**(1), 49-75.

김유식, 이솔잎 (2017). 결혼이주여성의 여가경험과 기본심리욕구충족 및 생애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1**(4), 14-28.

김은정, 이희찬, 강혜순 (2014).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유형과 문화적응과의 영향연구: 언어 능숙도와 사용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6), 37-56.

김종호 (2012). 결혼이주여성의 여가경험 탐색: 신체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희, 김영순, 김지영 (2015). **질적 연구 여행**. 성남: 북코리아.

김현경 (2016). 여가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3), 1-20.

김희순, 정희선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1), 93-106.

남지향 (2010).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영상물제작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예술진흥법 (201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웅기, 김상학 (2018).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인본주의적 가치실현의 전망. **문화와 융합, 40**(3), 29-62.

박인실 (2018).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 수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커뮤니티 아트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3**(4), 99-121.

배선식 (2016).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현상과 문화적응: 여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선아, 원영신 (201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스포츠 참가에 관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2**(4), 329-344.

백정숙, 이계희 (2006). 이주 노동자의 여가제약요인과 여가형태. **관광·레저연구, 18**(2), 243-259.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8월호**.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진배, 어승원, 김연화 (2013).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109-149.

송선기, 전승호 (2015). 전라남도 거주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국제문화연구, 8**(2), 94-116.

송영민, 이광옥 (201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여가와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7**(2), 97-113.

여성가족부 (2019a).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모임이나 활동 참여시 어려운 점**. (연구보고: 2019-07).

여성가족부 (2019b).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오세경, 김영순 (2019).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여가경험과 의미. **문화교류연구, 8**(2), 169-191.

윤소영 (2007). **사회성 여가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순자, 박용순, 송진영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1-25.

이승권, 김은선 (2016).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역할: 다문화 극단 '가람'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8), 381-398.

이지연 (2007). 무용사회학 정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원 (2015). 문화예술 활동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회복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철원 (2010). 재미 한인의 여가스포츠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157-172.

이춘양, 김기화 (2018).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8**(2), 123-147.

이혜린, 권유홍 (20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

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1), 151-170.

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화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전리상, 조홍중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6), 359-368.

정윤영 (2015). 사회과학분야: 무용공연체험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2**(1), 151-164.

정진옥, 정무성 (2013).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349-369.

황재섭 (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무용 참여를 통한 문화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hen, E. (1974). Who is a tourist? A conceptual clarifi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22*(4), 527-555.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A, Los Angeles: Sage.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Dumazedier, J. (1974). *Sociology of leisure*.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Murphy, J. F. (1981). *Concepts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논문 접수: 2020년 1월 30일
논문 심사: 2020년 2월 10일
게재 승인: 2020년 3월 6일

<ABSTRACT>

Exploring Migrant Women's Experiences in Cultural Art as a Leisure: Focused on the "H" Chinese Traditional Dance Team

Li, Chun-yang(Inha University)
Kim, Sumin(Inha University)
Lee, Hyunjoo(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experience of cultural art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ffects the social, living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immigrants' life, and to propose ways to improve cultural art programs based on it. Thus, the case study method was used during qualitativ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five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H" self-help group, a traditional Chinese dance team, focusing on their experiences in cultural ar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tudy, married immigrant women's experience in cultural art activities has seen positive effects such as enhancing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cquiring Korean culture, promoting self-cultivation, improving multicultural awareness, forming networks, economic assistance, improving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improving family relations, relieving nostalgia and enhancing confidence and self-esteem. However, the lack of support system for cultural art activities and social prejudice from permanent residents were identified as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ultural art activities of migrant wome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cultural art programs for immigrants based on this.

★ **Key words: cultural art, dance, married immigrant women, leisure, immigrant**